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진수 | 발행처: 대한민국의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21('22-11) | 2022. 11. 01.

러시아의 핵사용 시나리오와 북한의 도발
박재완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따른 방안 모색
방호엽

우크라이나 전쟁과 문경지교(勿頸之交)가 주는 함의
이영석

러시아의 핵사용 시나리오와 북한의 도발

박 재 완

(국민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무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기전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밀린 러시아가 서방을 압박하기 위한 ‘핵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이 결국 핵무기까지 꺼내들 것인가에 대한 우려섞인 예측과 함께 이에 자극 받은 북한의 도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만약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공격하고 북한은 또 어떤 도발을 할지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핵 위협을 지속해 왔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27일 푸틴은 핵 억지력 부대에 특수경계 태세 돌입을 지시하기도 했으며, 3월 22일에는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실존적 위협이 있다면 핵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이어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와 동맹국의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등 핵사용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2020년 6월 2일 공개한 총 3부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러시아 연방정부의 핵억제를 위한 핵정책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Nuclear Deterrence, 이하 러시아 핵억제 기본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 핵억제 기본원칙의 제3부 19조에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하기도 했다. 핵무기 사용조건은 ① 적국의 핵무기 발사에 임박한 징후와 자료 식별, ②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사용 징후 포착, ③ 러시아 핵무기 지휘 및 통제시설에 대한 공격 임박, ④ 적국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의 현행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이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수세에 몰릴 경우 전술핵무기 등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면 핵무기 사용 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핵무기로 공격하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으로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고 특수군사작전 통합사령관의 경질 등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이 오히려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2,000발을 포함하여 6,000여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핵강국이다. 러시아의 핵전략은 2000년 이후 기존의 수세적 핵 방어전략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른바 ‘비확전을 위한 확전(E2D, 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핵전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5년 이스칸데러-M 전술핵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으며, 최첨단 핵잠수함 벨고로드(Belgorod)를 보유하고 있다. 벨고로드는 최후의 날(덤스테이) 무기 또는 지구 종말(Apocalypse)의 무기로 불리는 핵어뢰 포세이돈(Poseidon)을 최대 8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포세이돈의 위력은 2메가톤(2Mt, TNT 200만 톤 위력)으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배 수준이다. 연구기관마다 다른 평가를 내놓기는 하지만 어떤 연구기관은 포세이돈의 위력을 100메가톤(100Mt, TNT 1,000만 톤 위력)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수시로 핵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핵 악몽: 더 늦기 전에 세계 구하기(Nuclear Nightmares: Securing The World before It Is Too Late)’의 저자 조셉 시린시온(Joseph Cirincione)이 워싱턴포스트(WP)지를 통해 기고한 시나리오이다. 시린시온은 러시아의 핵무기 선제사용 독트린을 기본으로 푸틴이 30만 명의 예비군에 대한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언급한 “러시아의 영토적 온전성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명히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핵무기 포함)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시린시온이 제시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는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없는 곳에 핵무기를 발사해 서방이 물러나도록 하는 ‘과시용 발사’이다. 흑해 등 바다로 쏘아 서방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해 물러나도록 하는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는 비교적 위력이 약한 전술핵무기(저위력, tactical nuclear weapons)로 우크라이나 ‘군사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M 전술핵무기를 2005년부터 실전배치해 놓은 상태이며 이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세 번째는 위력이 강한 전략핵무기(고위력, strategic nuclear weapons)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민간 표적인 ‘대가치 표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에 대한 직접 공격’하는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나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실행이 될 경우 전 세계 인류의 대재앙이 될 것이다. 물론 시린시온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한 두 번째 시나리오도 실제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오히려 가장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핵실험과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가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전술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 핵실험을 가장하여 인명의 직접적인 살상은 피하면서 각종 인프라에 대해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고고도에서의 핵폭발로 전자기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배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케네디 전 대통령 당시 쿠바 바 미사일 위기 이후 아직 지구 종말의 아말겟돈(Armageddon) 전망에 직면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과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핵위기 고조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핵위협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구 소련의 전쟁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북한이 푸틴의 핵도발을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8일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핵무력정책법)’도 ‘러시아의 핵억제 기본원칙’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은 KN-23, 24, 2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소나기 발사’ 시험을 지속하고 있고, 심지어 기존의 고각사격이 아닌 실거리로 화성-12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사거리 4,500km(고도 970km, 마하 17속도)로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에 탄착시키기도 하였다.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의 최종병기라 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7차 핵실험 등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푸틴의 핵위기 고조와 더불어 20차 당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마중 패권경쟁이 지속되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한미의 북핵 대응에 대한 딜레마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며,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따른 방안 모색

방 호 엽

(중국 산둥대 아태연구소 외래교수)

북한 정권의 핵 개발 및 핵 정책

2003년 3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이라크를 공격하였다. 이에 같이 악의 축으로 거론되었던 북한입장에서는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절대성을 느끼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3년 9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여 10월에 북한외무성 담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전 세계에 공표하였다. 이후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선언과 함께 2006년 10월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하며 핵 무력의 공고화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2010년에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공언하고, 2017년에는 마침내 ICBM(화성 15형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22년 9월 8일 제14기 제7차 최고 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법제화를 천명하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발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강하게 천명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스스로 핵무력의 법제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핵무기 사용지침을 공식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확장억제에 대한 단계별 재평가

이에 따라 우리의 군사전략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미 연합체계 내에서 논의되어왔던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함께 한국군 단독의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기존의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로 과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고도화된 미사일을 활용한 군사적 도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의 한국군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북한 김정은의 핵 공격을 고려한 적극적인 군사전략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공격에 대한 억제와 함께 외과수술식 도려내는 부분제거의 개념이 아닌 전면적인 방향으로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되어 그 변화의 중심개념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무모한 핵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공포의 핵 균형’이라는 명제 하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자체 핵 개발, 핵보유 전 단계인 핵 개발 능력(핵물질) 사전 확보, 한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핵 확장억제 재평가 등이다. 이 같은 대안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이 가능 하는지 여부는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 재평가 측면에 집중하여,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글로벌 군사전략 협조 및 실행체제 구축

첫째, 한미 간에 북한의 핵위협 등에 대한 심층 깊은 논의를 위한 상설협의체가 한 단계 격상하여 복원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4년 8개월 동안 운영되지 않았다 이번 9월 16일에 개최한 한미 고위급 간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격을 한미 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논의된 내용이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의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가 이른바 ‘억제력’과 ‘대응력’ 차원에서 군사 전략개념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방어의 성격이 강한 군사전략보다 공격적이고 공세적으로 진일보하여야 한다. 가령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 공격 미사일의 부분적인 방어에는 유용한 수단은 될지언정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사일을 전 방위적으로 방어하거나 제거하는 최적의 개념은 아니다. 때문에 한미는 압도적 전력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차원의 실행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군사적 대응 체제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간의 핵 공격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을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방어적, 수세적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강력한 공세적 군사전략 제고가 절실하다. 더 이상 방어방식의 군사전략은 폐기하고 보다 공개적이고 첨단 과학기술에 근거한 공세적인 선제타격 등의 시나리오가 반영된 군사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7차 핵실험부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공세적인 대응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험하는 미사일 발사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미-일 연합대응능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발의 핵미사일 공격이 군사성패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문경지교(刎頸之交)가 주는 함의

이 영 석

(우석대학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요즘 북한의 행하는 각종 도발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과 함께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함의를 먼저 살펴본 다음 문경지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러시아는 하나의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대부분의 안보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를 예상하였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피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면서 “피신을 위한 항공기보다 실탄을 달라.”고 청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3월 3일 뉴욕타임스(NYT)는 기자회견에서 “전쟁 중 죽는 게 두렵지 않나?”는 질문에 “나도 다른 이들과 같다. 자기 목숨이나 자녀의 목숨을 잃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일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같은 달 8일 영국 하원에서 열린 온라인 형식의 연설에서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에서, 하늘에서, 숲에서, 거리에서 계속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확고한 국가관과 전투 의지는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와 철수는 물론 부분 동원령과 점령지에 대한 계엄령 발표 및 전술핵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위기에 몰리고 있다. 더구나 동원령을 무시하고 외국으로 탈출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명분 없는 전쟁임을,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 침공 당시에는 핵무기도 동맹국도 없기에 러시아는 자신만만하게 군사력을 투사했지만, 우크라이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동서고금에 많이 있다. 예컨대 진(秦)나라의 막강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趙)나라를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게 한 문경지교의 고사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문경지교(刎頸之交)의 의의

문경지교는 목을 베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우정 또는 그런 벗을 뜻한다. 한자로는 刎(벨 문), 頸(목 경), 之(의 지), 交(벗, 우정 교)이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조나라에 인상여(藺相如)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신(大臣)인 무현(繆賢)의 식객이었다. 진나라에 강탈당할 뻔한 조나라 최고의 보물인 화씨벽(和氏璧)이란 옥을 지켜내고 도로 조나라로 가져오자 당시 왕인 혜문왕(惠文王)이 상대부(上大夫)의 높은 벼슬을 내렸다. 이로부터 3년 후, 혜문왕과 진나라 소양왕(昭襄王)은 민지(澠池)라는 곳에서 회동하게 되었고 인상여는 혜문왕을 수행하였다. 회동 분위기가 무르익자 소양왕은 혜문왕에게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어 망신을 주려고 하였다. 이에 인상여가 나서서 오히려 분위기를 역전시켜 소양왕을 무안하게 만들었다. 혜문왕은 인상여의 대담함을 높이 평가하여 귀국 후 상경(上卿)이라는 더 높은 벼슬을 주었다. 이렇게 되자, 상장군인 염파(廉頗)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며 우리나라를 술한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세 치 햇바닥 몇 번 놀린 것밖에 없는 자를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언젠가 인상여를 만난다면 툭툭히 망신을 줄 테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인상여는 가능하면 염파 장군을 피하였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왕이 주관하는 조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길을 가다가도 멀리서 염파가 보이면 얼른 피하고는 다른 길로 가곤 했다.

인상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자, 그의 가신(家臣)들이 몰려와 항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저희들은 상공을 지금까지 성심성의로 모셔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공보다 서열이 낮은 염파 장군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끄러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인상여가 물었다. “그대들은 염파 장군과 진나라 임금 중 누가 더 두려운가?” “물론 진나라 임금이지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조차 진나라 임금을 꾸짖고 혼내 준 사람이다. 그런 내가 어찌 염파 장군을 두려워하겠느냐. 지금의 양국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진나라보다 국력이 약하다. 그런데도 진나라가 선불리 침공하지 못하는 것은 염파 장군과 내가 있기 때문임을 인정할 것이다. 만일 우리 두 사람이 싸운다면 어느 한쪽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진나라가 바로 쳐들어올 것이 아니냐? 내가 염파 장군을 일부러 피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가신들은 감복하여 사죄하고 물러갔다. 얼마 지난 뒤에 이 말을 전해 들은 염파 장군은 자기가 경솔했음을 깨닫고, 옷통을 벗고 형구(荊具)를 등에 지고 인상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 “이 미련한 놈이 상공의 높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부디 벌해 주십시오.” 인상여는 달려 나가 염파 장군을 맞아들여 따뜻한 말로 위로했고, 그로부터 두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목이라도 내 줄 정도의 우정’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문경지교의 함의

2021.7.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표하였으며, 2022. 10. 15일 미국 시사 전문지 U.S.News에서 글로벌 마케팅 기업 VMLY&R의 계열사 BAV그룹,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과 공동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계 6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각종 도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잘못하면 우리의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문경지교가 주는 함의를 도출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필자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동맹국과 군사력이 없으면 주변국은 그냥 두지 않는다. 둘째,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쟁(政爭)과 포퓰리즘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정치지도자와 국민은 일치단결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다. 넷째, 확고한 안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라가 넉넉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중심이 되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방법으로 국민과 공감하고 함께 하는 안보 단체가 되어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